

제12회 평의원회 회의록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2.10.05.(수), 15:30~17:20, 행정본관(E14) 4층 제2회의실

○ 참석자 : 재직 평의원 11인 중 9인 참석

- 의 장 : 신하용

- 평의원 : 고정식, 김소영, 김유승, 김진우, 박성동, 이동민, 이창준, 이희승

※ 대리인 : 기획처장 김경수

※ 배석자 : 이동만 공과대학장, 여현덕 뉴욕캠퍼스 자문역, 서용석 시설부장, 윤재성 건설팀장

□ 주요 논의내용

○ (제1호) 전기(제11회) 회의록 보고

-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평의원회 부의장 선출(안)

- 평의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창준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함.

○ (제3호) 뉴욕캠퍼스 추진현황 보고

- 이동만 공과대학장이 뉴욕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

- 뉴욕캠퍼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답변 및 의견이 있었음.

1. 뉴욕캠퍼스 추진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안?

- [답변] 뉴욕캠퍼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과 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KAIST와 NYU가 50:50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부담하게 될 예정임.

- [의견] 뉴욕캠퍼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청사진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정합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함.

2. KAIST 창업원은 창업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KAIST-NYU Joint Campus 추진 시 창업 정책의 변화는?

- [답변] Joint Campus를 통해 NYU의 창업전문가 및 창업보육센터 등을 활용함으로써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단계별 뉴욕캠퍼스 구축 계획?

- [답변] KAIST와 NYU가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1단계 (Soft Collaboration)이며, 실제로 뉴욕에서 부지와 건물 등을 확보하여 공동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2단계(Hard Collaboration)임.
- [의견] NYU와 학생교류·연구협력 등을 진행하는 1단계는 가볍게/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좋은 기회로 판단되나, 뉴욕에 실제 캠퍼스를 구축하고 별도의 학생을 모집하는 2단계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거치고 내부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함.

4. 사전타당성 조사 관련

- [의견] 뉴욕캠퍼스 설립은 여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타당성 조사는 특히 2단계 협력에 집중하여 서두르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의견] 사전타당성 조사 초안이 마련되면 평의원회에 내용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함.

5. 뉴욕캠퍼스 설립 시 학생들의 혜택

- [의견] 학생들은 뉴욕캠퍼스 설립을 통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와 현재 운영 중인 교환학생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
- [의견]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KAIST포탈 등을 통한 학생의견수렴이 필요함.

○ (제4호)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 서용석 시설부장이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
-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답변 및 의견이 있었음.

1. 대외적인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건물별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건설비에 영향은 없는지?

- [답변] 관련 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간접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4개 공사현장에서는 별도의 건설비 요청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임.

2. 대학원 테니스 코트 설치 관련

- [의견] 대학원 테니스 코트 설치 시 코트 사용 효율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붕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요망.

3. KAIST 학생창업커뮤니티 신축 관련

- [의견] 학생창업커뮤니티 신축 후보장소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함.
- [답변] 학생창업커뮤니티 건설은 한화생명 측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한화생명 측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4.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

- [의견] 현재 매우 여러 건의 건축사업이 진행 중인데, 각각의 사업이 시차를 두고 독립적으로 성안되어 진행되다 보니, 시간을 돌이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다소 비효율적인 계획이 되는 면이 있고,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 예를 들면, KAIST 미술관과 롯데-KAIST 디자인 연구센터를 한꺼번에 계획하였다면 시너지가 있는 건축계획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 계획 시점에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최대한 고려한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건축에서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답변] KAIST 미술관과 롯데-KAIST 디자인 연구센터는 건축시점과 사용목적이 달라 함께 건축하기는 어렵고, 추후 유사한 목적의 건축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통합하여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5. 기숙사통합사감실 구축

- [의견] 기숙사 사감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는 통합사감실 구축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음.
- [답변] 기숙사통합사감실 구축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향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6. 교내 건설사업 증가

- [의견] 예년과 다르게 많은 건설공사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